

# 창업 성공, '아이템'이 절반

## 성공창업 체크포인트

- ✓ 현재보다 가능성
- ✓ 투자 대비 수익성
- ✓ 경기 영향 민감성
- ✓ 타겟 고객층 범위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마저 추락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나홀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한편 도소매·음식숙박업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그어느때 보다 성공 창업을 위한 아이템 선택이 중요한 시기다. 특히 성장 가능성, 투자대비 수익성 등을 고려해 창업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11일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월 166만2000명에서 165만9000명으로 3000여명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403만9000명에서 40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박민구 두드림창업경제연구소장은 "성공 창업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아이템 선택'이라며 "지금의 인기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투자 대비 수익성, 경기 영향을 받는 정도, 타겟 고객층의 범위 등을 따져본 후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창업자가 좋아하고 즐겨야만 오랜 기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육류 아이템이다. 남녀노소 폭넓은 고객층에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높은 인건비와 원재료 부담에 따른 수익성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이다.

프리미엄 돼지고기전문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고을래 이베리코후라이는 낮은 원가 비율과 높은 수익률이 장점이다. 고을래 이베리코후라이 관계자는 "원부자재 비율을 35% 이내로 낮춰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라며 "돼지고기를 숙성 후 진공포장해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본사의 체계적인 물류시스템으로 인해 초보자도 쉽게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깃집 창업은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깬 차돌박이전문점 일차돌도 안정적이며 낮은 가격에 차돌박이를 공급하면서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차돌 관계자는 "원팩 시스템으로 전문 주방인력이 필요 없어 인건비를 최소화시켰다"라며 "경기불황에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가맹비와 교육비, 오픈물품비, 오픈홍보대행비, 계약이행보증금, POS, 로열티를 면제하는 7부 창업을 실시중에 있다"고 말했다.

잔치국수와 돈까스를 협업한 돈까스잔치도 높은 투자대비 수익성과 안정적 메뉴 운영으로 올해 창업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돈까스잔치의 베스트 메뉴는 잔치국수에 돈까스가 올라가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돈잔국수와 새콤달콤한 비빔국수에 돈까스가 올라간 돈비국수다. 돈까스잔치 관계자는 "식사 후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도록 '샵인샵' 단팻빵'도 숭인숍(shop in shop)으로 함께 론칭이 가능해 매출의 안정성을 높였다"라고 전했다.

커피전문점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다. 레드오션으로 평가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게 커피 이외의 메뉴를 부각시키는 디지털카페다. 대부분의 디지털카페가 브런치 등을 내세운 반면 카페피아모는 홈메이드 젤라토를 부각시키면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개척에 나섰다. 카페피아모의 젤라토는 천연재료로 매장에서 매일 직접 만드는 수제 아이스크림이다.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여성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고객 사랑을 받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귀뚜라미 "미세먼지 유발물질 줄이고 가격 내리고" 친환경 가스보일러 첫 선

## '거꾸로 IN eco 가스보일러'

질소 배출량 4분의 1로 똑 콘덴싱보다 20만원 저렴  
온수 풍부하고 부피·무게↓

귀뚜라미는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대폭 줄인 '거꾸로 IN eco 가스보일러'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거꾸로 IN eco'는 귀뚜라미보일러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거꾸로 IN' 모델에 특수 설계된 저녹스(저NOx) 연소장치를 장착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존 가스보일러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가격이 친환경 보일러로 주목받고 있는 콘덴싱보일러보다 20만원 정도 저렴하고 콘덴싱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배출을 위한 별도 배관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하다. 또한, 귀뚜라미의 특허기술인 하이핀 연관을 적용해 온수가 풍부한 저당식 보일러의 장점은 살리고 부피와 무게는 줄여 상품성을 높



귀뚜라미의 거꾸로 IN eco 가스보일러.

인 것이 특징이다.

귀뚜라미는 2015년부터 콘덴싱보일러에 국한돼 있던 저녹스 기술을 일반보일러에도 적용해 왔다. 이번 '거꾸로 IN eco'를 포함해 앞으로 출시하는 일반 가스보일러에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저녹스 버너를 부착해 대기오염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귀뚜라미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맞아 '거꾸로 IN eco'와 가스누출탐지기, 지진감지기, IoT 각 방재어 온도조절기, 분배기로 구성된 20~40평형대 주택용 세트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이번 세트

상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더욱 안전하고, 고장 걱정 없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난방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국내 일반보일러 시장은 연간 80만대 수준으로 콘덴싱보일러 시장보다 두 배 이상 크지만, 판매되고 있는 일반보일러 대부분이 질소산화물 배출량 1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거꾸로 IN eco 출시가 우리나라의 저녹스 1등급 보일러 대중화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휴롬 "건강한 티타임 즐겨요"... 티마스터 출시

휴롬은 티마스터 신제품(사진)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휴롬 티마스터는 가정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건강한 차를 즐길 수 있는 전기 티포트로, 재료에 따라 버튼만 누르면 최적의 시간과 온도로 차를 우려낸다.

이번에 내놓은 티마스터는 잎차·꽃차, 과일차, 한방차·약탕, 과육가열, 보온 등 5가지 티 프로그램이 세팅돼 있어 원터치로 재료의 맛과 향, 영양, 농도가 최적화된 차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보온 모드의 조그다일로 원하는 온도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 40℃ 분유부터 50℃ 블렌딩티·허브차, 60℃ 녹차·꽃차·과일차, 70℃ 한방차·커피·핫초코 등 차와 음료에 따라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차별점이다.

또 작은 점 형태의 램프로 이뤄진 러닝라이트는 목표 온도에 도달할 때 순차적으로 점등됨으로써 각 프로그램 모드의 진행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보온모드에선 30분마다 하나씩 소등돼 남은 보온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은 오는 18일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 우선 만날 수 있다. 정가 13만9000원보다 저렴한 9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일반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다. /김승호 기자

## 동화기업 R&D·인사·경영 등 하반기 신입 공채

4년제 대졸... 7개 분야  
9월 21일 서류접수 마감

동화기업이 오는 21일까지 2018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한다.

이번 공채 모집은 ▲R&D ▲기술 ▲인사·노무 ▲영업 ▲경영관

리 ▲사업추진 ▲비서 등 총 7개 분야에서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하고,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직무면접, 인성면접, 최종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서류 접수

는 동화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21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11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는 12월 초 입사 예정이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동화기업은 2000년 이후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목적질자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승호 기자

## 오토바이·자전거 전용 블랙박스

### 링크웨어 '아이나비 스포츠'

링크웨어가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최적화된 블랙박스를 새로 출시했다.

링크웨어는 '아이나비 스포츠(Sports)'를 공개하고 첫 번째 라인업인 모터사이클 블랙박스 'M1', 자전거 전용 블랙박스 'TC-1'와 도난방지장치인 'BLS-100' 제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모터사이클 전용 블랙박스 '아이나비 스포츠 M1'은 전후방 FHD 2채널 제품이다. ▲야간 영상



솔루션인 '울트라나이트비전' ▲주행 시 격한 움직임에도 뚜렷하게 영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항공드론에 사용되는 EIS기능과 6축 센서를 도입한 '어드벤트 EIS' 등이 적용됐다.

자전거 전용 블랙박스 '아이나비 스포츠 TC-1'은 전방 FHD 1채널 블랙박스 ▲전방 165도 광시야각 ▲완충 시 최대 7시간 연속녹화 ▲라이딩 혹은 정차 중 충격 시 녹화가 되는 'G 센서' ▲메모리 용량 포화 시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하는 '루프 코딩' ▲실시간 위치확인 및 영상 구현, 확인도 가능한 '전용 스마트폰 어플' 등이 적용됐다.

가격은 '아이나비 스포츠 M1'이 47만9000원(32GB), 51만9000원(64GB)이며 '아이나비 스포츠 TC-1'과 'BLS-100'는 각각 ▲21만9000원(16GB) ▲5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 비타민하우스 '시베리안 차가버섯' 매출 300억 돌파

비타민하우스는 '시베리안 차가버섯'이 2년 만에 300억원 매출고를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비타민하우스의 '시베리안 차가버섯'은 신선도 유지와 품질관리를 위해 러시아 현지 제조원에서 모든 제조공정을 거친 완제품을 직수입한 제품이다. 2016년 7월 출시 이후 건강을 챙기는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 타며 흡수성 향이 연이어 매진될 만큼 반응이 뜨겁다.

비타민하우스는 차가버섯 대중화를 위해 오랜 시간 뛰어난 기술력의 러시아 현지 제조원을 수배해왔다. 그 결과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차가버섯을 12배 농축하여 유용성분을 최대로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동결 건조한 제품을 항공 직수입하



/비타민하우스

25g 기준 1만 원 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가버섯이 고가의 건강식품이라는 편견을 깨고 있다.

차가버섯에는 다당체인 베타글루칸, 이노시톨,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 SOD, 식이섬유 등의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크로모겐 콤플렉스라고 한다.

즉 크로모겐 콤플렉스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양이 풍부한 차가버섯이다. 비타민하우스의 시베리안 차가버섯의 크로모겐 콤플렉스 48.4% 이상, 베타글루칸 127.17mg/g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유효 성분 함량이 타사 제품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차가버섯 원물을 구입해 직접 달여 먹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비타민하우스의 '시베리안 차가버섯'은 영양분을 12배 농축한 동결건조 분말 형태로 간편하게 차처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차가버섯을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고객들이 시베리안 차가버섯을 찾아주셔서 준비된 수량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